

# 혁신의 본질: 한계성을 넘어선 ‘자유’

“창의성과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제약조건에 정면으로 맞설 때 그 한계성이 주는 영광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옳아맨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다.”

얼마 전 북유럽 3개국(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혁신클러스터를 둘러 볼 기회가 생겨 다녀왔다. 이들 국가들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행복수준이 높기로 유명하다. 동시에 혁신(innovation)의 대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리라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나는 떠나기 전 몇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먼저 21세기 선도국가들의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 그들은 왜 혁신을 추구하고,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가? 그들의 보편적 삶은 어떠한가?



가장 인상적인 국가는 핀란드였다. 국토는 우리나라 남한의 3배 정도 되지만 인구는 우리의 1/10밖에 되지 않는 500만에 불과했다. 우리처럼 천연자원이 없는 핀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5,000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를 넘어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핀란드가 세계 1위인 분야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수한 교육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청렴도이다. 그들이 빈약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전략은 단연 인적자원이었다. 국가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까지 경계 없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은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성공한 기업들은 곧 사회적 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러 기관을 만나는 내내 인상적인 부분은 하나같이 미래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기업인 노키아(NOKIA)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충격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앵그리버드(Angry Bird)와 클래시 오브 클랜(Clash Of Clan) 등과 같은 세계적인 캐릭터와 게임회사들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제조업 기반의 덩치 큰 몇 개의 회사에 의존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중심의 글로벌 스타트업 회사로 빠른 변화를 유도했다. 산학연을 통한 융복합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해내는 것이 국가적 목표가 되었고, 개방과 협력(Open & Collaboration)은 그들의 정신이 되어 있었다. 이처럼 적은 인구와 환경적 제약,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혁신케 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헬싱키 외곽 바위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암석교회는 이러한 제약조건이 만들어 낸 최고의 혁신모델이라 생각한다. 건축 당시 예산 부족으로 바위를 파내고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티모와 투오모 형제는 다이내마이트를 이용해 바위를 터뜨린 다음 그 안에 교회를 앉혔다. 그 과정에서 나온 돌파편들을 가지런히 쌓아올려 교회 윗부분을 만들고 천장을 덮었다. 천연 바위로 둘러싸인 교회는 분위기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천연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천장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자연채광은 더할 나위 없는 일품이다. 지금은 연간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교회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어떤 천재가 애당초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창의성과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제약조건에 정면으로 맞설 때 그 한계성이 주는 영광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옳아맨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다.

진정 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삶에서 이런 교회를 얼마나 지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한계짓는 조건들에 맞서 왔는가? 내면의 목소리로 자문해 봐야 할 일이다.

Written by C.E.O James Roh(노상충)

“눈물을 흘리지 말라. 노여워하지 말라. 스스로를 이해하라.” 스피노자

